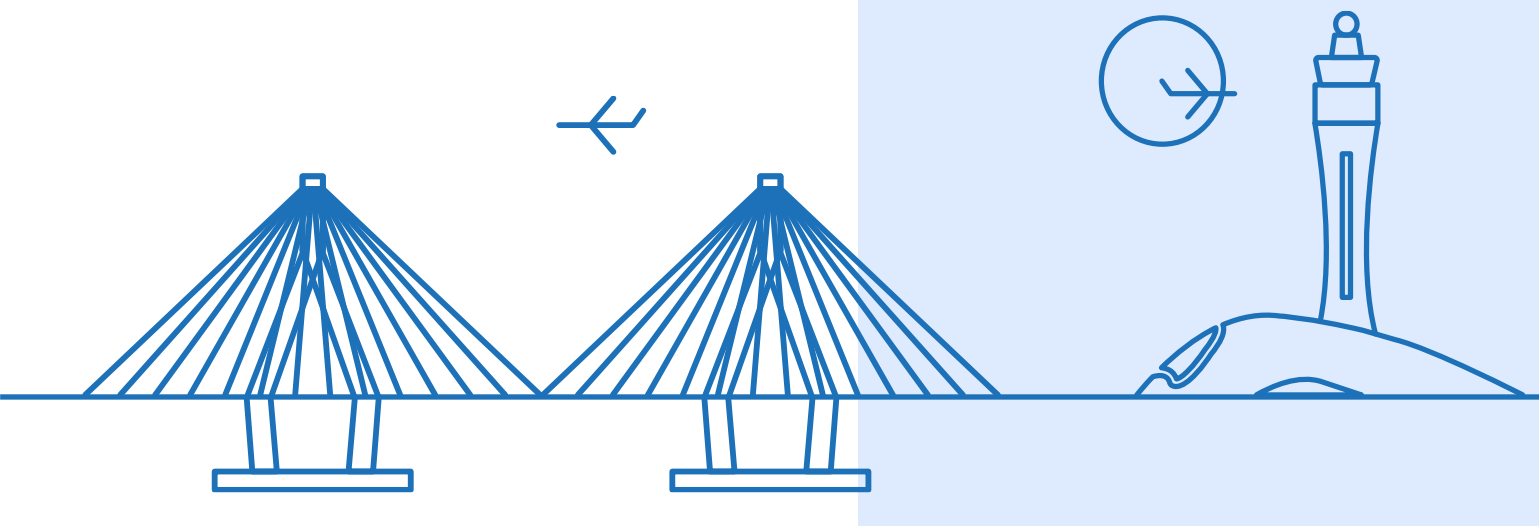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 01 주간 Special-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 02 국내 코로나19 현황
- 03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
- 04 국외 코로나19 현황
- 05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6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수족구병)
- 07 국내외 감염병 뉴스
- 08 [홍보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 1) 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보도자료). 2022.6.22.
- 2)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판. 2022.6.21.

원숭이두창(Monkeypox) 국내 유입

✓ 국내유입 현황¹⁾

-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6월 22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독일에서 6월 21일 귀국,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
 -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 환자는 독일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접촉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 한편, 다른 의심자 1명은 수두로 확인되었다.
- 역학조사 결과 국내에 고위험 접촉자는 없으며, 환자가 탑승한 비행기의 인접 좌석 승객에 대해 중·저위험 접촉자로 분류하여 최종 노출일부터 21일간 각각 능동감시와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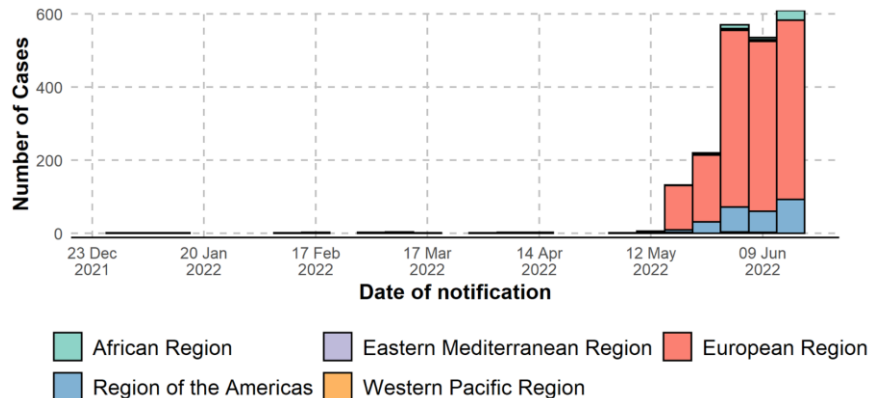
✓ 국내 대응 상황¹⁾

- (경과) 방역당국은 5월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 강화, 5월 31일 위기경보수준 '관심' 단계로 발령, 6월 7일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 원숭이두창은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주의 관리기준에 근거, 1급 감염병 관리기준에 준하여 초기대응을 하고 있다.
- ('주의' 단계 격상)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6월 22일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 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여 비상방역체계 가동 예정임을 밝혔다.
- (해외유입 감시 강화)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외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 원숭이두창 빈발 국가들에 대한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활용을 통한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 제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 (예방접종) 노출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이상' 노출자 중 사전 동의에 의해 감염 예방 및 증상 완화 목적의 노출 후 14일 이내 예방접종(post-exposure prophylaxis)을 시행할 계획이다²⁾.
 - 현재 국내에는 2세대 백신을 보유 중이며,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치료제)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경구)는 7월 중 국내 도입 예정이다.
- (진단검사)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진 교육)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 환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Monkeypox) 국내 유입

✓ 국외 발생 현황¹⁾

-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유럽 및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 등 총 42개국에서 확진 2,103명, 의심 1명, 나이지리아에서 사망 1명 발생이 보고되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6월 22일까지 이스라엘 11명, 아랍에미리트 13명, 레바논 1명, 싱가포르 1명, 한국 1명 등 5개국 27명 발생이 보고되었다.

▶ 세계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 분포 (2022.1.1.-6.15, WHO 보고 기준)¹⁾✓ 원숭이두창 Q&A?²⁻⁴⁾

- Monkey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다.
-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된다.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접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잠복기) 최소 5일~ 최대 21일, 평균 6~13일 정도이다.
- (증상) 발열(>38.5℃),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1~3일 후 얼굴을 중심으로 피부 발진이 번져 나가며, 이러한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된다.
- (전기기) 증상발생 후 3~5일 간 전염력이 강하다.
- (전파력⁵⁾) 최근 발표된 기초감염재생산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_0) 분석 결과, 원숭이두창의 R_0 는 1.15~1.26로, 코로나19나 SARS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치명률) 약 3~6% 정도이며, 주로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서 사망사례가 보고되었다.
- (백신) 두창 백신으로 약 80~85% 예방 가능하며, 2019년에 원숭이두창에 대한 백신(MVA-BN)이 승인된 바 있으나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2세대 두창 백신은 생백신으로 특수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상처를 낸 뒤 균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3세대 백신은 피하 주사 형태로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 (변이 발생 가능성)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Poxviridae 계통의 Orthopoxvirus 속에 속하는 이중 가닥 DNA를 가진 외피 보유 바이러스로, 복제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복제가 일어나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17 June 2022). Disease Outbreak News: Multi-country monkeypox outbreak in non-endemic countries: Update. Available at: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outbreak-news/item/2022-DON393>
- 2)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pidemiological update: Monkeypox outbreak(20 May 2022).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ease Outbreak News: Multi-country monkeypox outbreak in non-endemic countries(21 May 2022).
- 4)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판. 2022.6.21.
- 5) Hamins-Puertolas, Marco and Charpignon, Marie and Majumder, Maimuna, An Early Transmissibility Estimate for the 2022 Monkeypox Outbreak (23 May 2022).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

02

국내
코로나19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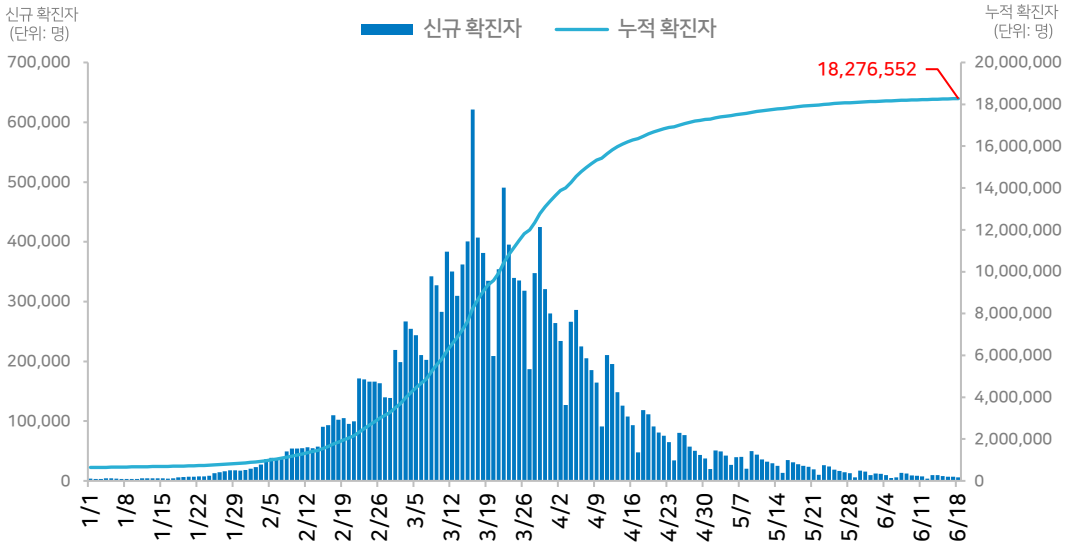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내 발생 현황

2022.6.19. 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사망	17	2	9	8	9	11	14
재원 위중증	95	98	93	98	82	71	70
신규 입원	57	73	70	75	60	60	51

국내 일별 확진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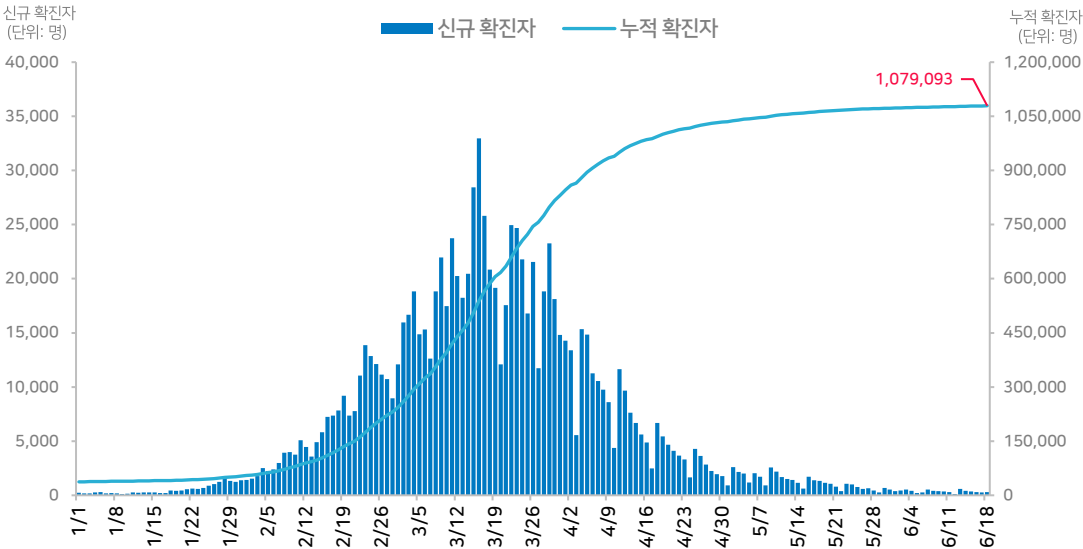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전국 시도별 발생 현황

2022.6.19. 0시 기준 (단위: 명, %)

발생률 (명/인구 10만 명당)		지역	확진자 누계	전국 비율	누적 사망자수
서울	38,357	합계	18,276,552	100.0%	24,441
부산	32,882	서울	3,647,540	20.0%	4,865
대구	32,230	부산	1,101,666	6.0%	2,169
인천	36,600	대구	768,825	4.2%	1,342
광주	37,181	인천	1,079,093	5.9%	1,405
대전	35,467	광주	536,010	2.9%	564
울산	34,154	대전	515,077	2.8%	706
세종	37,635	울산	383,068	2.1%	342
경기	36,600	세종	139,961	0.8%	36
강원	33,950	경기	4,964,989	27.2%	6,254
충북	34,999	강원	522,323	2.9%	867
충남	33,969	충북	559,077	3.1%	729
전북	33,778	충남	719,881	3.9%	962
전남	32,720	전북	603,558	3.3%	880
경북	29,997	전남	599,684	3.3%	476
경남	33,156	경북	787,916	4.3%	1,390
제주	35,141	경남	1,098,836	6.0%	1,256
		제주	237,817	1.3%	182
		검역	11,231	0.1%	16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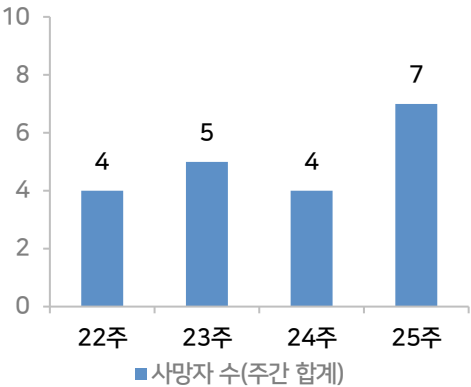
주간 발생 현황

2022.6.19. 0시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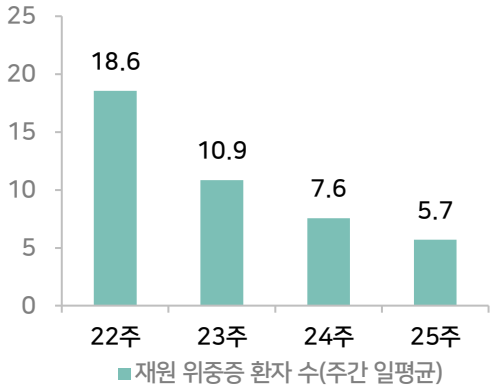
구분	사망	재원 위중증	신규 입원	확진
최근 7일간 일평균 (6.12.~6.18.)	1.0	5.7	2.4	325.4
(누적)사망 1,405명		(누적)확진 1,079,093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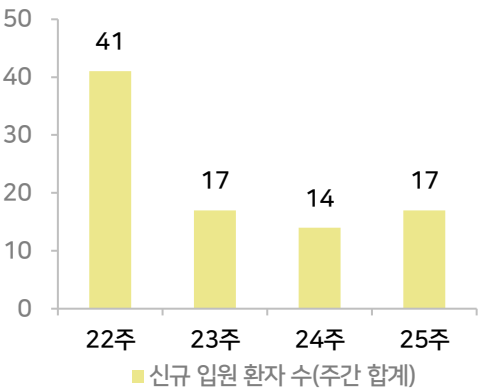
▶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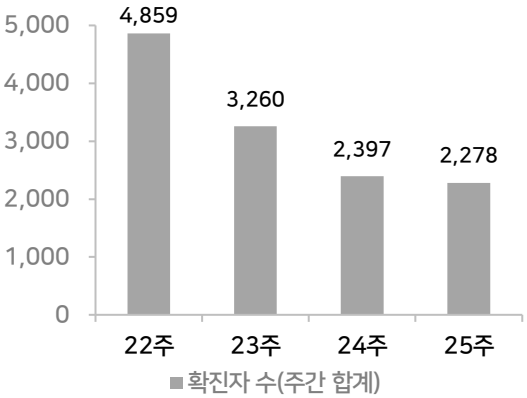
▶ 재원 위중증



▶ 신규 입원



▶ 확진



주간 위험도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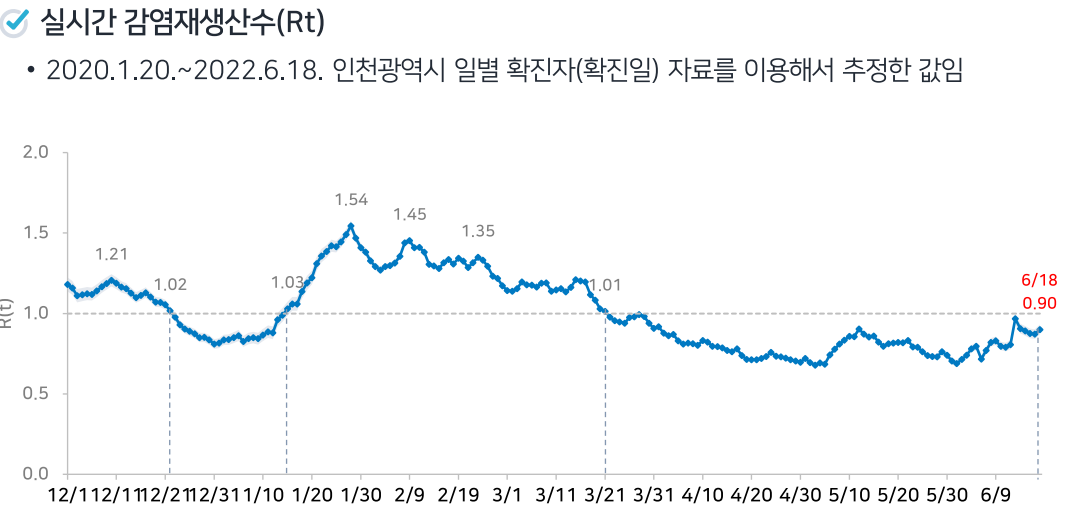
- ✓ 최근 1달간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최근 1주간(6.12.~6.18.) 일평균 확진자 수는 325.4명으로 직전 1주(342.4명)보다 17.0명(5.0%) 감소하였음
 -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 수는 20.3명으로 직전 1주(10.9명)보다 9.4명(86.8%) 증가
 - 60세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는 45.4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4.0%임
 - 18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7.0%임

구분		22주 (5.22.~5.28.)	23주 (5.29.~6.4.)	24주 (6.5.~6.11.)	25주 (6.12.~6.18.)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국내발생	684.0	452.1	331.6	305.1
	해외유입	10.1	13.6	10.9	20.3
	전체	694.1	465.7	342.4	325.4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775	473	356	318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15.9	14.5	14.9	14.0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872	599	416	388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7.9	18.4	17.4	17.0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t)		0.73	0.78	0.79	0.90
코로나19 예방접종률(%)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87.6 86.7 64.3 72	87.7 86.8 64.6 75	87.7 86.8 64.7 76	87.7 86.8 64.7 78
		'22.5.29. 0시 기준	'22.6.5. 0시 기준	'22.6.12. 0시 기준	'22.6.19. 0시 기준

1) 실시간 감염재생산수(Time-varying reproductive number, Rt): 특정 시점 t에서 인구집단의 평균 감염력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짐,
R = 1: 지역사회에 일정 수의 감염자가 유지됨,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남

2) Cori 방법 이용, 각 점은 1일을 의미함



병상 현황

2022.6.19. 0시 기준(단위: 병상, %)

구분	확보병상	사용병상		가용병상	
감염병전담	436	6	1.4	430	98.6
중증환자전담	375	9	2.4	366	97.6
준중증환자전담	577	11	1.9	566	98.1

04

국외 코로나19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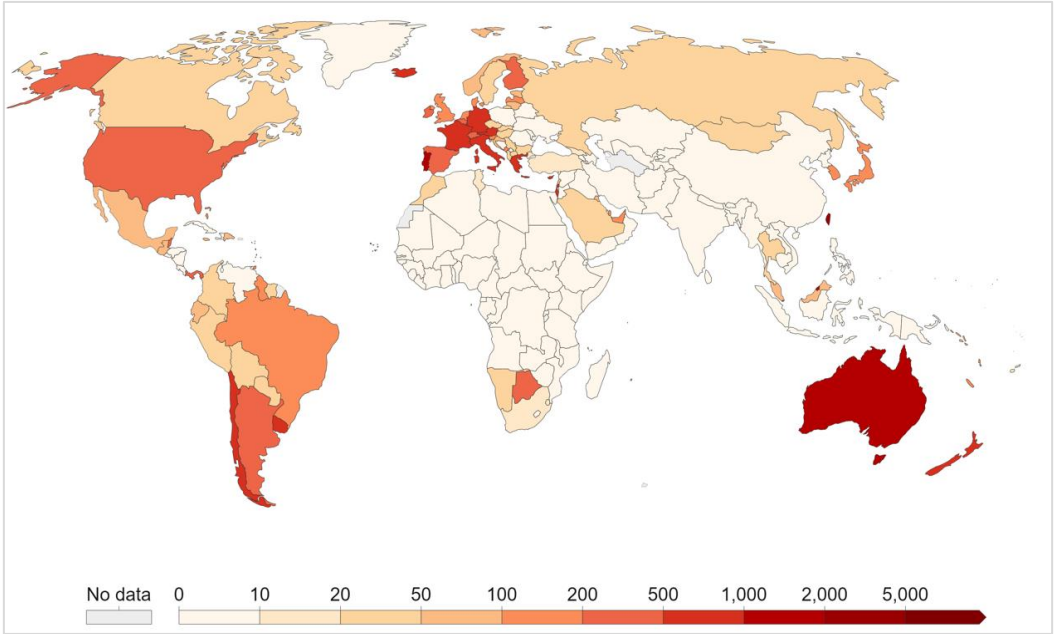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국외 주간 발생 현황

- 전 세계 주간 확진자 발생 규모
 - 누적 총 538,967,394명, 사망 6,318,657 명 발생
 - 지난 1주간(6.12.~6.18.) 일평균 신규 확진자 516,515명, 사망 1,237명 발생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

2022.6.19. 0시 기준 (단위: 명/인구 100만 명당)



주요 10개국 발생 현황

2022.6.19. 0시 기준 (단위: 명, %)

지역	누적 확진자	최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누적 사망자수	치명률
인도	43,296,692	106,678	524,855	1.21%
미국	86,230,982	103,512	1,013,377	1.18%
대만	3,244,453	57,537	5,049	0.16%
이탈리아	17,844,905	30,120	167,703	0.94%
호주	7,801,241	26,733	9,372	0.12%
일본	9,124,454	14,025	31,019	0.34%
칠레	3,882,425	10,494	58,226	1.50%
대한민국	18,276,552	7,299	24,441	0.13%
이스라엘	4,226,245	6,638	10,896	0.26%
그리스	3,539,423	6,088	30,079	0.85%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2				동기간대비 (1-25주)				동기간대비 (1-25주)			
	25주	24주	23주	22주	2022	2021	증감	5년 평균	2022	2021	증감	5년 평균
보툴리눔독소증									5		▲ 5	1
1급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수두	10	13	20	32	410	554	▼ 144	1,191	8,128	10,218	▼ 2,090	25,135
홍역												37
콜레라												
장티푸스						1	▼ 1		21	34	▼ 13	58
파라티푸스					2		▲ 2	1	19	7	▲ 12	19
세균성이질									13	7	▲ 6	4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		▲ 1	1	67	51	▲ 16	57
A형간염	1	1		4	76	258	▼ 182	225	1,121	3,154	▼ 2,033	3,069
백일해					2		▲ 2	10	21	8	▲ 13	124
2급 유행성이하선염	8	3	6	8	158	210	▼ 52	317	3,080	4,150	▼ 1,070	6,203
풍진												1
수막구균 감염증												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 1	1
폐렴구균 감염증	1	1	1		21	7	▲ 14	18	178	133	▲ 45	249
한센병										3	▼ 3	3
성홍열		2			8	18	▼ 10	165	215	353	▼ 138	3,359
VRSA 감염증									1	1	- 0	1
CRE 감염증	16	44	35	50	1,065	785	▲ 280	689	12,126	9,703	▲ 2,423	8,162
E형간염					6	5	▲ 1	6	242	198	▲ 44	220
파상풍									9	11	▼ 2	13
B형간염			1	1	11	13	▼ 2	11	198	218	▼ 20	188
일본뇌염									2		▲ 2	0
C형간염	13	12	11	14	323	372	▼ 49	384	4,034	5,297	▼ 1,263	5,046
말라리아	2	2	2	2	14	20	▼ 6	19	76	113	▼ 37	126
레지오넬라증		1	1	2	10	12	▼ 2	11	122	168	▼ 46	155
비브리오패혈증	1				1		▲ 1	0	4	2	▲ 2	3
발진열	4	1			10		▲ 10	2	23	1	▲ 22	6
쯔쯔가무시증					4	6	▼ 2	7	411	410	▲ 1	470
렙토스피라증					1	1	- 0	0	54	33	▲ 21	30
브루셀라증									4		▲ 4	2
신증후군출혈열						2	▼ 2		63	115	▼ 52	94
CJD/vCJD						3	▼ 3		12	37	▼ 25	26
뎅기열									6		▲ 6	35
큐열					1		▲ 1	1	23	16	▲ 7	48
라임병									3	4	▼ 1	7
유비저										2	▼ 2	1
치쿤구니아열									1		▲ 1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4	31	▼ 7	4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0

- 25주차(2022.6.12.~2022.6.18.)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2.6.22.(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1-2022년 자료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18-2022)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간(2018-2022)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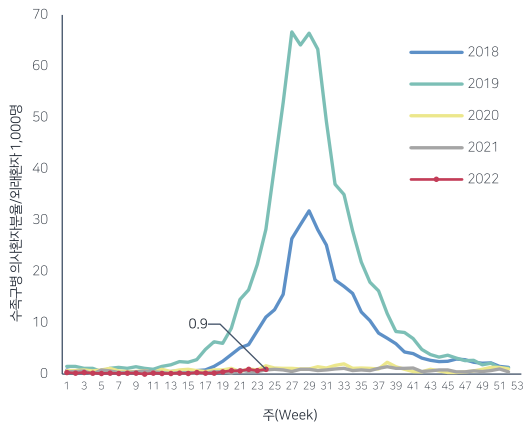
- (전국) 24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0.9명으로 전주(0.7명) 대비 증가
- (인천) 24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0.0명으로 전주(0.0명) 대비 동일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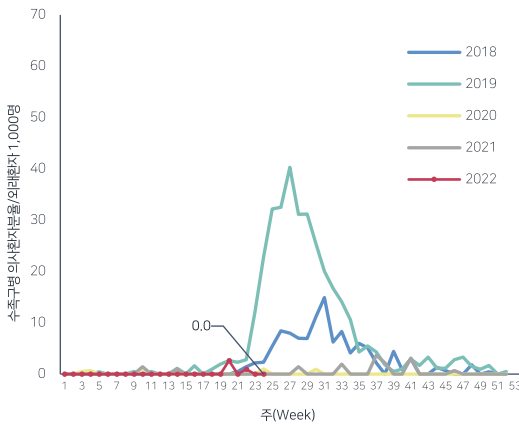
구분		2022년							
		17주	18주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24주
전국	전체	0.2	0.2	0.4	0.7	0.6	0.9	0.7	0.9
	0-6세	0.3	0.2	0.5	0.9	0.7	1.0	1.0	1.2
	7-18세	0.0	0.3	0.0	0.1	0.3	0.5	0.0	0.3
인천	전체	0.0	0.0	0.0	2.6	0.0	0.9	0.0	0.0
	0-6세	0.0	0.0	0.0	4.2	0.0	1.5	0.0	0.0
	7-18세	0.0	0.0	0.0	0.0	0.0	0.0	0.0	0.0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천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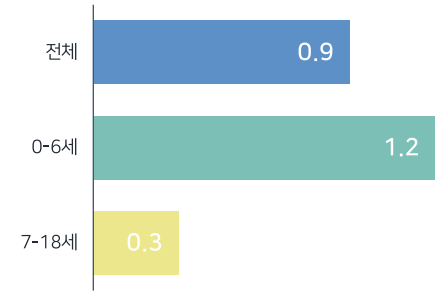
2018-2022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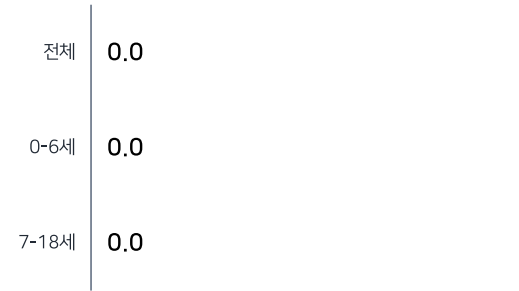
2018-2022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인천)



2022년 24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2022년 24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인천)



- 24주차(2022.6.5.~2022.6.1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2022.6.20.(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웹보고 및 2022년도 24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95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 인천광역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6개

인천 감염병 뉴스

- [인천시의료원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 지정 <2022.6.19. 중도일보>](#)

최근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인천시는 감염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료원을 '원숭이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인천의료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상 2개를 배정해 놓았으며, 향후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관내 다른 병원 두 곳도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 감염병 뉴스

- [영유아 '토하는 장염' 급증...여름철 확산 주의 <2022.6.20. YTN>](#)

최근 여섯 살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구토 증상이 있는 장염이 급증하고 있는, 전파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노로바이러스와 장내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데 둘 다 질병관리청의 표본조사에서 최근 두 달간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3주 사이엔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특히 0세~6세 사이 환자가 많아 노로바이러스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영유아 환자였다. 원래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활동량이 늘면서 봄이 지난 지금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5주 연속 '낮음' <2022.6.21.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가 5주째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6으로,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명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12주 연속 1미만을 유지 중이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으로, 전주(62명)보다 19.4% 줄었다. 주간 사망자 수는 76명으로 전주(113명) 대비 32.7% 감소했다. 국내외 연구진들은 현재의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4주 후 재검토 <2022.6.17. 조선일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나,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격리 수준에 따라 재유행 시점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7일을 유지하면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긴 하나, 지금과 같은 감소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격리를 유지할 때보다 환자가 8.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유행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나 격리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수준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바이러스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국외 감염병 뉴스

- [원숭이두창 증상에 항문·직장 통증, 장 출혈, 장염 추가 보고됐다 <2022.6.21. 파이낸셜뉴스>](#)

2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원숭이두창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항문·직장통증, 직장 출혈, 장염 또는 대변이 마려운 느낌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원숭이두창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또는 피로감 이었는데, 발열·두통·근육통 대신 입·생식기·항문 주변 발진부터 나타나 항문·직장 통증 등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고된 것이다. 발진은 증상 발현 약 1~3일 뒤 얼굴을 시작으로 신체 다른 부위로 퍼진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치부됐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 남미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서도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보고되었다.

- [우크라이나에 드러운 감염병의 그림자... '콜레라'는 무엇? <2022.6.20. PARMEDAILY>](#)

러시아의 침공으로 비위생적인 보건 환경에 놓인 우크라이나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시신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식수가 원인인 듯 보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우크라이나에 콜레라 백신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인 비브리오콜레라 감염으로 발생하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급성설사를 유발해 중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평균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콜레라균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오염된 물, 환자의 대변, 구토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끓는 물에 쉽게 죽고 산에 약할 뿐 아니라 콜레라에 감염되면 1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체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위생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전파력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보건위생이 좋지 않은 인도, 중남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콜레라 환자 및 사망자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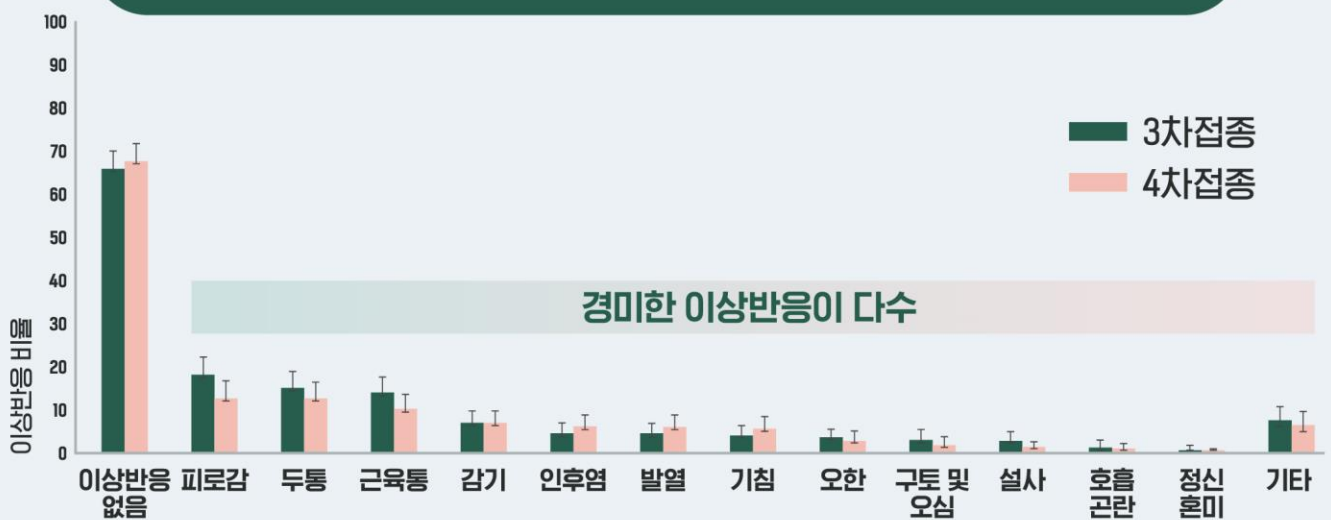
2022.06.17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4차접종도 안심하세요

이스라엘 연구 결과, 4차접종 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고령층의 생명보호를 위해 4차접종도 꼭 참여해주세요.

3차접종과 4차접종 후 이상반응 비교 결과



[출처] Safety of the fourth COVID-19 BNT162b2 mRNA (second booster) vaccine[MedRxiv, '22.6.8.]